



“亞문화전당 활성화 위해 수요 중심 접근 필요”

광전研, 문화전당 100일...블로그 게시물 1600여건 분석

‘예쁘다’·‘좋다’ 언급 많아...어린이문화원 ‘최다 관심’ 야간촬영명소·셀프투어·야간 버스킹 프로 개발 시급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물은 1679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방문객 3400명 당 1건, 뉴스 2건당 1건의 블로그 게시물이 생성된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야간촬영명소 코스’ 등 수요를 감안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6일 광주전남연구원 김광욱 책임연구원은 “광전 리더스 인포 제5호”에 게

제한 논문 ‘시민의 눈에 비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00일’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문화전당 관련 게시물을 분석한 후 문화관광명소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 수치는 유사 문화시설인 서울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부산 영화의전당에 비해 소폭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가 지닌 대중성과 광

주의 외래관광객 방문 여건 등을 감안하면 무난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블로그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좋다’였다. 다음으로 ‘예쁘다’, ‘많다’라는 단어가 많았다.

또 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 5개 원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곳은 어린이문화원(29.5%)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프로그램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문화원 다음으로 인기가 높았던 문화정보원과 문화창조원은 서로 다른 성격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다양한 전시장’이나 ‘비밀날래와 비슷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어 상호 차별화에 대한 과

제가 대두됐다.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성이 높은 장소로 동명동(38.5%)과 종장로(29.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랜 기간에 걸쳐 연계 방문지로 공을 들였던 예술거리(2.1%), 대인예술시장(1.8%), 양림사직권(5.7%) 등은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전당의 아시아문화관광명소화를 위해서는 먼저 ‘수요자 중심의 접근’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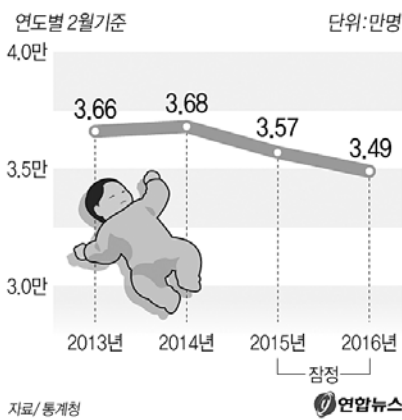
아시아문화전당을 경유한 사람들의 41.3%가 야경을 촬영하며 ‘예쁘다’를 언급한 사실에 주목해 ‘야간촬영명소 코스’, ‘셀프투어 코스’, ‘야간 버스킹 투어 프로그램’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

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아시아문화전당의 방문객을 광주와 전남지역의 유명 관광지로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면 광주·전남의 문화관광지 방문객을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유입시키는 역발상 전략이 현실적이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대인시장~동명동~문화전당을 연계한 ‘예술-명-당’상품을 게스트하우스나 호텔에 패키지상품으로 판매하거나 광주·전남의 세계 최대 랜드마크를 연계한 ‘남도 월드컵 투어’상품 개발 것을 제안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출생아수 추이



아기 울음소리 똑

2월 출생아수 3만4900명

역대 최저...전년비 2.2% ↓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가임기 여성 인구가 줄고있고 혼인 건수 자체도 감소하면서 이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3만49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2% 감소했다. 2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최저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2월 출생아 수가 3만 50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가임기 연령대 여성 인구가 줄어 들고 있는데다, 이로 인해 절대적인 혼인 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월 혼인 건수는 2만25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했다. 그러나 예년보다 하루 많은 29일이었던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 1~2월 누적 혼인 건수는 작년보다 5.9% 감소한 46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청년의 눈물’ 1면서 계속

광주지역 청년들은 창업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실패할 경우 감수해야 하는 위험 부담(4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20.8%), 사회적 인 편견(13.0%), 창업 아이템 부족(6.3%),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 부족(5.0%) 등을 청년 창업의 큰 어려움으로 응답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정규직·비정규직 실태, 이직에 따른 일자리 경로, 청년 부채와 삶의 질을 비롯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 및 광주에 대한 인식과 청년도시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내는 광주청년종합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한 불신이 커 보였다”면서 “지자체도 일자리 수요를 늘리기 위해 기업 투자유치 등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당장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줄 해결책은 못돼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전남 시·군 공무원들 본청 전입 기피

올해 13명...서남권 치우친 탓

전남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전남도 전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주 인근권, 전남 동부권 공무원들의 기피 현상이 심각해 도와 일선 시·군 간 협력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에서 전남도로 전입한 7·8급 공무원들은 2011년 82명에서 2012년 39명, 2013년 63명, 2014년 58명, 2015년 52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13명으로 최근 6년간 가장 적었다.

권역별 전입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남 서남부권(목포,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에서 197명으로 전체(307명)의 64.2%를 차지했다.

반면 전남 동부권(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전입자는 71명으로 전체의 23.1%, 광주 인근권(나주, 담양, 화순, 장성) 전입자는 39명으로 전체의 12.7%를 각각 차지했다. 전입을 기피하는 이유는 전남도가 서남권에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입문한 신규 공직자일수록 승진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을 더 선호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입 실적이 미미한 일선 시·군 단체장에게 협조를 구하고, 계획교류(전남도-일선 시·군 공무원 1대1 교류)를 통해 전입 기피 현상을 타개할 방침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학·기업 협력 사업 지역경제 ‘효자’

광주시 2259억 들어 9곳 15개 사업...수출·고용 증가

대학의 연구역량을 기업에 접목하는 협력사업이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관련 특허를 획득하면서 지역경제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시비 등 2259억 원이 투입돼 지역 9개 대학에서 15건의 ‘대학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대학은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실증 등을 수행하는 형태다.

그동안 치과분야에 쏠렸던 대학과의 의료산업 협력은 정형외과, 콘택트렌즈 분야로까지 확산했으며, 에너지 신산업과도

연계해 진행 중이다. 특히 생체의료분야 협력사업이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전남대와 공동으로 육성하는 미래형 생체부품소재산업은 치과 위주의 제품 개발, 인증특허, 마케팅 등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176명의 취업을 알선했고, 일부 수혜기업은 1년 만에 수출 17%, 고용 44%가 증가했다.

2006년부터 조선대와 공동으로 추진한 치과용 정밀장비 및 부품센터는 치과산업 클러스터화를 도와 2011년 129개였던 관련 기업이 지난해 172개로 대폭 늘었다.

시는 올해 광주보건대와 콘택트렌즈 설

계와 디자인 등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전남대와 정형외과용 융합의료기기 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도 한전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전남대와 추진하는 에너지 저장분야 신기술 ‘레독스 흐름 전지개발’ 사업, 호남대·한전KPS와 추진 중인 ‘에너지 사물인터넷 생태계 조성사업’ 등이 실적을 내고 있다.

시는 오는 6월 광주 연합 기술 지주회사를 발족해 2020년까지 국·시비 등 130억 원을 투입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원일기자 cki@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특구내 빌딩 매매

지하 1층 ~ 지상 7층 (중심 상업지역)

대지 : 661㎡ (200평) 건축 : 495㎡ (150평)
연면적 : 3,446㎡ (1042평)

최상의 인센티브!

법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 문화 콘텐츠 연계 사업시 최적
-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5년 범위내 감면
- 다양한 보조금 지원 및 대폭적임 세제감면 금융지원

010-8696-8949
미래나눔공인중개사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Ym 유한바이오 **글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0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AU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학 문명화사업 자매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